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9년 3월 4일
(월요일)

북부신문 5면

강북구의회 13명 의원 체제 첫 임시회 개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구본승 "실내놀이터 추진" 5분발언

▲ 강북구의회 이백균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폭력 사태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사과했다. 구본승 의원은 공원 내 유휴공간에 어린이실내놀이터를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최재성 의원의 사퇴로 당분간 13인 의원 체제로 운영될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가 13인 체제로 첫 임시회를 가졌다.

강북구의회는 4일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제224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백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최재성 전 의원이 연루된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강북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구민 여러분과 1200여 강북구청 직원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강북구의원 모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몸을 낮추고 자숙하는 자세로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임과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이어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영준 의원과 유영채 전직 공무원, 장병식 · 김숙영 세무사, 이영능 회계사를 선임했다.

◆ 재조성 벌리어린이공원 유휴공간 제안

구본승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관련 공원 유휴 공간 내 어린이 실내 놀이터 건설'을 강북구청에 제안했다.

구 의원은 구정질문 등을 통해 강북구에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만들자고 꾸준히 제안해왔고 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구 의원은 기존 사업안대로 진행할 경우 사업 속도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 내 공원 등의 유휴공간에 실내놀이터를 건립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 첫 시작으로 구 의원은 번3동의 벌리어린이 공원 내 유휴공간을 제시했다.

벌리어린이공원 유휴 공간의 경우 2017년 조성된 노원구의 마들상상놀이터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큰 규모. 구 의원은 "올해 벌리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가 예정 돼 있는 만큼 실내놀이터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달라."며 구청의 검토를 주문했다.

시사프리신문 11면

강북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개회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3월 4일부터 ~ 3월 15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2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백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지난달 22일 발생한 최재성 전 의원이 연루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구민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몸을 낮추고 자숙하는 자세로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임과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 의장은 "12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각종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나 구민들과도 폭넓게 소통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린다"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각종 사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추진하여 주시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모든 역량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제224회 서울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석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김영준 의원, 유영채 전직공무원, 장병식 세무사, 김숙영 회계사, 이영능 회계사가 선임됐다. 이어진 5분 발언에서 구본승 의원은 '초미세먼지 대비 공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실내 어린이 놀이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고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번 224회 임시회는 3월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5일부터 ~ 3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현장 활동을 실시하며 3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영일 기자